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공 양성
인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개머,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인류에게 구원자가 나타나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 위에 들어오신 것이다. 세상 인류의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하여 구약에서 직접, 간접으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신다. 메시아를 약속하여 주셨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땅 위에서 구주로 사시며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여 주시고 그의 제자들, 추종자들, 사도들의 사역과 주님의 교회의 설립과 사역들, 소망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 가실 심판과 영생을 말씀하여 주셨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인류에게 있어서 평화로 이어 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그의 오심은 아브라함 이후에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가르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자이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답변하고 있다(행 26:4-7). 이 놀라운 구원자는 베들레헴에 오셨고, 온 세상은 고요하다. 이제 베들레헴의 들안에서 양 치던 천한 목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 준다(눅 2:8-12). 그리고 이 땅 위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예언을 들었다. 다윗의 동굴로 바로 이 밤에 가라는 것이다. 강보로 쌓인 아기, 그리고 상상치 못한 말 구유에 누인 아기였다. 이들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바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원하였다. 이것은 이루어졌다(눅 2:16-17).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다(눅 2:25-26). 그리스도를 놀랍게 설명하고 있다(눅 2:28-32). 흑암에 행하던 인류가 하늘의 큰 빛을 보게 된다(사 9:2). 이것이 주의 구원이다.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딤후 3:16).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며, 구원자이시다(사 9:6-7 : 빌 2:6-7).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심으로 놀랍다(고후 8:9). 낮고 천하케 온 인류를 만나주시려고 오셨다.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며 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게 된다(요 1:14).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분은 생명의 주로, 빛으로 날으셨다(행

3:14-15 : 요 1:4).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로부터 첫 번째 소식이 내려진다(눅 1:8-13). 이 소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마지막으로 선포된 예언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말씀이다(눅 2:14, 17).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나”(말 4:5). 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시키기 위하여 먼저 보냄을 받은 자의 탄생을 말하여 준 것이다. 제2의 엘리야와 같은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어 주시는 자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이다(말 3:1). 말라기 선지자가 이듬하여 준 “주”가 그 전에 임하여 오실 것을 성전 안에서 수종들고 있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전하여졌다는 이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중, 경건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하여 준 신령한 메시지는 인류 구원자로서의 나타나심이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대상 17:11-15). 예언이 있는 지 7백 년 뒤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눅 1:35). 그녀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셨다. 다음으로는 신령한 메시지가 요셉에게 전해진다. 비록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긴 하지만, 여기서의 요셉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를 모셔드리도록 지명받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야 예고하듯이 메시야는 구속함이 필요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임이 임마누엘이 되신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1). 구원자가 할 사역이 선포되어진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이 되기 위하여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름 예수는 그에게 주어진 한 인간의 이름인 동시에 전 인간을 감당할 “구원자”로서의 이름이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의 이사야의 예언과 또 요셉에게 주셨던 그의 이름 “예수”의 완성이다.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였던 오실 주의 완성이다. 이들은 세상을 뒤바꿔 놓는 획기적인 시점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실 이”, “돌는 해”, 또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실 위대한 구원자”라고 지명하고 있다(눅 1:67-71, 78-79, 2:28-32, 2:20).

복음을 위한 삶이었기에 아름다운 은퇴 (딤후 1:14) 다음 주일(18일), 찬양 예배 시 은퇴식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년의 엘리 제사장 모습은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삼상 4:18).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통치하였던 솔로몬의 말년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히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히 3:14).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위해 헌신을 다하신 분들의 은퇴식이 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빈에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은 다음주 주일예배(2-5부)에 마지막 대표 기도를 담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갈 6:14)이 남아 있어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 됨을 부끄러워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다고 하고 겸손히 고개숙이시는 이분들의 고백은 모두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모세가 나이는 많았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빈에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은 더욱 영적인 생동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도우실 것입니다(신 34:7). 모든 성도님들은 이분들의 은퇴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양예배에 꼭 동참하시고, 이후에 있을 공동의회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자 명단은 7면 참조

The Sunrise From On High Will Visit Us

⁽⁷⁸⁾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With which the Sunrise from on high shall visit us, ⁽⁷⁹⁾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Luke 1:78,79)

Today's Bible verses conclude Zacharias' spirit-filled prophecy, which followed the birth of his son, John the Baptist. His beautiful words were the result of two ministry visits from the angel Gabriel. The first one came directly to him, while he was performing his priestly duties. Gabriel told him, "Do not be afraid, Zacharias, for your petition has been heard, an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will give him the name John... It is he who will go as a forerunner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attitude of the righteous, so as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 (vv. 13&17). He and his wife were old, so the idea of having a son was very unusual. His initial response was unbelief, so God took away his ability to speak until what He said actually happened.

The second ministry visit from Gabriel came to his niece, Mary. Gabriel told her,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vv. 31-33). After Mary received this message, she came and visited Zacharias and his wife for three months (v. 56). When she shared her good news, he understood the unfolding of God's miracle story. The promised Messiah was coming, and his son would help prepare the way for His ministry.

Sure enough, when John was born God opened Zacharias' mouth and the Holy Spirit filled it with His prophecy. He witnessed, "Blessed be the Lord God of Israel, for He has visited us and accomplished redemption for His people" (v. 68). He could testify to what was actually happening. He followed this witness statement with Scripture, then prophesied about his son, "And you, child, will be called the prophet of the Most High; for you will go on before the Lord to prepare His ways; to give to His people the knowledge of salvation by the forgiveness of their sins (vv. 76&77). His prophetic message concluded, "Because of the tender mercy of our God, with which the Sunrise from on high will visit us,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vv. 78&79). When the Sunrise came from heaven to visit this earth, his son would prepare His way. This Sunrise was going to make things happen that never happened before.

The Sunrise was coming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darkness. When Simeon saw baby Jesus, he prayed to God.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a Light of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the glory of Your people Israel" (Lk. 2:30-32). This Sunrise was a special light that could shine on all people. The Bible tells us that He was the "Light of men" and "the true Light which, coming into the world, enlightens every

man" (Jn. 1:4&9). Zacharias' prophecy exactly matched Jesus' description. Even Jesus said, "I have come as Light into the world,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Me will not remain in darkness" (Jn. 12:46). The Christmas message is that the Sunrise came to visit. God sent His wonderful shining Light. When He created this earth, the first thing he said was, "Let there be light" (Gn. 1:3). Light brings life. It makes the flowers blossom and the trees bear fruit. God wants to give us life through His Son, the Light of the world.

The Sunrise was coming to shine upon those who sit in the shadow of death. Adam and Eve's sin brought death to all humans, so that everyone sits in the shadow of death. Romans 6:23 says,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When Jesus was born, the Light that wipes away darkness and death shined. Hebrews 9:27 says, "And inasmuch a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Everybody has to die and face God's judgment. But the resurrected Jesus can change our destiny. His sunshine overcomes death.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Truly, truly I say to you, an hour is coming and now is,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Jn. 5:24&25). Lazarus and Jairus' daughter died, but when they heard Jesus' voice they lived (Jn. 11:44 ; Mk. 5:35&42). Jesus' resurrection overcame the power of death. He gives eternal life to those with faith.

The Sunrise was coming to guide our feet into the way of peace. Naturally, our feet walk towards turbulence. Without Jesus, we can never attain perfect peace, but with His help, we can have a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He is the only connection we have to God. Until His return, He leaves us with His peace,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Jn. 14:27). Jesus said,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My dear friend, as Christmas approaches,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 received because of Jesus' birth? What kind of relationship do you have with Jesus? Has the Sunrise come to you, or are you still living in darkness, in the fear of the shadow of death? Is the Light leading you to heaven, as it led the wise men from the east during that first Christmas season? They saw the star and followed its light to Jesus, so that they could worship, glorify, and give Him their gifts. This Christmas, please remember that from heaven God sent His Sunrise to visit you. Have you received Him? **H**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누가복음 1:78,79)



김성원 목사

첫 번째 천사의 방문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으로 불리게 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예언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언은 천사 가브리엘의 두 차례에 걸친 방문이 있던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가랴 자신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이 일은 그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한 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운 백성을 예비하리라”(13-17절). 그와 그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방문

가브리엘 천사의 두 번째 방문은 사가랴의 조카딸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31-33절). 이 소식을 들은 후 마리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 석 달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66절).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전했을 때, 사가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깨달았습니다. 약속된 대사가 이제 곧 오실 것이고, 자신의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가랴의 예언

요한이 태어난 후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열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게 하셨을 때 이 일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가랴는 증거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68절). 그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사가랴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76-77절). 그의 예언은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78, 79절). 이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때 자신의 아들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돋는 해는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행할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눅 2:30-32). 이 돋는 해는 만민에게 비추는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사람들의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요 1:4,9). 사가랴의 예언은 예수님께 관한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 12:46). 크리스마스가 전하는 소식은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창 1:3). 빛은 생명을 낳습니다. 빛은 꽃들을 피어나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곧 세상의 빛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생명을 주는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23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어두움과 사망을 몰아낸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27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4, 25). 나사로와 아이로의 딸은 죽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요 11:44; 막 5:35-42).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평강의 길을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결코 완전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평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남겨 두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돋는 해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돋는 해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습니까? 첫 크리스마스 때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빛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았고 그 빛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자신들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돋는 해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돋는 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

수요일 예배 메시지

두 어머니의 만남 (눅 1:39-45)

두 여인의 만남은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예언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윗의 혈통에 따라 메시아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산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두 여인의 만남은 산중에서 이루어졌다.

즐거는 엘리사벳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엘리사벳은 산중으로 들어갔다(눅 1:24,25). 그녀는 혹시 이 일이 알려질까 두려웠다. 그러나 이 비밀의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졌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수태하리 못한다 하되 이미 어찌 되었나니”(눅 1:36). 이 모든 일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탄랄 것이라 너를 그 뜻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땅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9). 땅과 같은 곳에 생수가 내려졌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크리스마스에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해 기뻐하자.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내려지길 원한다.

예상외의 즐거움 방문객

하나님의 은총은 연약한 여인에게 내려졌다(눅 1:26,27).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와서 알렸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0,31). 계속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질문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 1:34). 납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천사는 대답한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나보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인간의 상상, 계획으로 알 수 없는 은총의 역사였다. 이처럼 메시아에 관한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지만 그 은총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자. 이를 위해서 전통이 아닌 복음과 관계를 맺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7,38).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있는 산중으로 가서 문안한다(눅 1:39,40). 예상하지 못했던 마리아의 방문으로 엘리사벳은 놀란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벳의 몸에서 일어난다.

두 어머니의 합창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배를 만지며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두 어머니의 만남은 참 평화와 기쁨이었다. 영광의 예배, 바로 그 자체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는가? 은총의 신비를 감사해야 한다. 이 두 여인의 찬송을 드려자.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다 비할 데 없는 복과 그 빛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다 축망 못하리”(찬 538장). 믿음, 소망,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현장에 찬송이 있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두 여인이 드린 예배에 참여하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양을 드려자(눅 1:41,42). 아마도 경건한 사람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현장 속에서 놀라운 찬송이 나온다(눅 1:43-45).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 마리아는 찬송한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민에 나를 복이 있도 일컬으리이다”(눅 1:46-48). 이것이 진실로 크리스마스의 찬양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상의 열려와 근심 이 가득한 채 일출로만 찬양하고 있지 않은가? 믿음의 눈을 열고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가며 찬양하자.

인간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두 여인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마 1). 영적인 인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 두 여인의 만남은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였다. 두 여인의 고백은 “말씀은 진리로소이다”(눅 1:46-48). 진리는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땅에는 두 어머니가 필요하다. 하나는 이야기하고 하나는 듣는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두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이러한 은총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을 사랑해왔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아한 사단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없을 때 우리를 쓰러지고 만다.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잔잔하게 베틀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밝아나하느니라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뵈오리”(찬 541장).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자. “영광 나라 천사들이 땅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심 왕계 절세라”(찬 118장). 영의 눈을 떠서 말 구유에서 나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크리스마스에 내려진 은총의 축복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교회와 은퇴집사로 일선에서 물러난 지도 어언 3년, 주님 다시 오시마 하는 날은 날로 날로 가깝고 인생 황혼 길에 주님 앞에 보고서를 드려야 할 텐데... 그간 주님의 은혜 속에 열심히 충성했다고는 하였던지 막상 무엇하나 내어 놓을 수 없는 제게 단기 선교야말로 마지막 때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선교를 다닐 때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이번 선교에서는 이전에는 전혀 맛보지 못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시간 시간 건강과 초조함, 기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허락치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적극적인과 능동적으로 행하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한 가짓 한 가짓 방문하며 축복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선교는 거리나 외부의 노출된 지역에서는 전도지를 배포할 수도 없는 극히 제한된 사역이었기에 더욱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후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입에서 나가 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 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사 55:12).

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길에서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허락하시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한 여러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봉순(문태인수집사, 7교구)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

이번 선교를 통해 지난 6년간 선교 사역을 나가지 않고 그저 지킴만 보았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선교지는 예상했던 것보다 무슬림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지보다 복을 전하기가 어렵고 국가의 법으로 전도를 금하여서 조심스럽게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거리의 한복판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모스크가 위치하여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어 주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대담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과 대학교, 병원 주변, 시장, 교하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언어도 부족하고 그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선교지의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 열매를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제 주님 앞에 나오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선교 사역을 감사히 마치고 무사히 도착하였다고 선교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더욱 꾸준한 기도로 또 다른 선교 사역의 시작을 다짐하며 십자가 군사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조성관(선도, 청년1부)

보혈의 은혜로 하나 되어 드리는 신령한 예배



이 훈 (장로, 예배위원장)

신령한 예배

5대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신령한 예배는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십자가 대속의 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은 다른 그 어떠한 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행 8:27). 에디오피아 내사는 예배하러 왔다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으며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예배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사골이었던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인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삶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드릴 영원한 찬송의 제목과 예배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랑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심령은 제각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의 예배 내용이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예배로 그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사

단은 항상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 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맞춘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죄인이 드리는 예배

“제라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겨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13). 이 세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참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예비하여 두신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엢 2:5).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의 기도가 없는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는 거듭남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예배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함부로 평가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스스로를 예배의 산 제물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라”(고후 1:18). 제물된 우리는 말씀에 “아멘”뿐이지 인간적인 판단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로 하나되는 교회

주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갈급해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온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임목사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벌써 내년도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며 모든 예배를 수종하는 종들도 신령한 예배를 위한 기도와 준비를 철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위원회의 종들은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되 특히 모든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예배실에 착석하여 예배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때 비로소 신령한 예배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더욱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2006년 춘천교회를 통해 드려질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실 주님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될 교회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합 2:20).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저는 딸 둘을 둔 40대 가정으로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잘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쫓겨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 또한 어려서부터 적당히 믿어왔기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 한 구석이 언제나 해소되지 못한 불신과 불안, 불안으로 놀려 있었습니

다. 그러던 중 아는 권사님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증현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제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얼마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는지 마음 속 깊이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기도조차 한낱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죄를 지으면서도 세상 것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할수록 내 자신 속의 성령님을 손뼉으로밖에 대우하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으로서 제 안에 임하도록 마음을 그릇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의 모든 문제를 언제, 어디서든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1 분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죄에 빠지는 나 약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약점은 부족하지 않 매일 성경을 읽으며 끊임없이 기도할수록 저는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눈물이 절로 납니다. 제 삶이 저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구현 (성도, 새가족부)

한 영혼을 향한 기도 그리고 전도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 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주님은 저에게 항상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주님이 택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비롭기까지 한 기도와 전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탄과 이단의 권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하며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는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항상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저의 최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나의 관심이 오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한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영혼을 향한 나의 관심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평생 전도자가 되어 십자가를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안성직(인수집사, 6교구)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40절).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며, 홍해를 갈라 민족을 구하며, 단지 걷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의 증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더욱 큰 은혜가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 성경을 통틀어 어디를 찾아보아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과 관계없는 것들이 없다.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 죽게 하사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사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극악한 우리를 얼마나 '조진 없이'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축복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감사할 수 있었다.

'약속'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살리시고 이제 예비하신 새 집에서 그의 얼굴을 뵈운 날을 기다리는 그 은혜, 소망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누리기 위한 기쁨을 얻으려 발바둥치며, 모든 것을 받은 자임에도 모든 것을 잃은 자처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물질과 욕심에 홀고 웃는 나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눈물이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없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그렇다면 그분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여 세상에서 멸시와 핍박을 받고, 고난과 재물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의 고백이 내 입술과 마음 가운데 결코 메마를 수 없는 능력이 됨을 깨달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진우 (청년부)

"성탄절이 좋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좋습니다. 예쁜 도리야 밝은 불빛이 저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탄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때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소망하며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일찍이서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항상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짐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본받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불미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마 28:20).

모든 기도와고 반성하며 다짐하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원중(성도, 사랑부)

2006년 일꾼명단 변경 안내

권사회 임원 변경

회 장 / 김은숙	지 도 / 정진호
서 기 / 박효지	부서기 / 김승옥
회 계 / 홍화숙	부회계 / 이정애

지회	회장	해당교구	지회	회장	해당교구
1지회	이형숙	(1, 6, 10, 13, 14)	2지회	유선덕	(2, 7, 11, 15)
3지회	남 회	(3, 5, 8, 9, 12)	4지회	현경남	(4, 16, 17, 18)

1. 예배위원회

추가 1명 / 성례부 5조 강영자

2. 교구위원회

권사 박직 / 박선춘

9교구 에스더전도회장 / 면 - 김정희 권사 명-박현숙 권사

16교구 베드로전도회장 / 면 - 양병진 안수집사 명-정승진 집사

17교구 루디아전도회장 / 면 - 이순자 집사 명-임창순 집사

3. 제1교육위원회 교사 추가 임명자

영아부 김성신 윤경자

유아부 이한불 이호식 강미경 김영은 박미향 박예정 서인순 신명자 이정희 한유리

유년부 남미선 이기연 전혜정 함수정 홍수경

초등부 김연희 이교숙 최성현

소년부 강혁진 김하경 한병구 김언정 정원임

중등1부 오영자

중등2부 김현선 최민정 홍정호

중등3부 김 록 김재경 강영자 성유경 오숙영 이영숙 이지연 조선희

4. 제2교육위원회 교사 추가 임명자

고등부 박현우 강현정 김하경 박윤정 신신경 이다정 이미애 이순애 전혜경

5. 제3교육위원회 교사 추가 임명자

장년1부 안화순

장년2부 김영주 박미련 강길래 이미재 이영숙 황주옥

장년3부 강정희 김소선 김연옥 서화자 오명준

소망부 이민호 조분자

사랑부 이삼연 강명숙 이선옥 이순옥 한성수 김보라 손지영 최주영

타이부 김정희 김수자

6. 새가족부양육부 교사 추가 임명자

김영숙 이미정

7. 교구일꾼 이동 청원

2교구 1) 8지역 남성구역장 / 면-안준모 명-이상배

2) 새가족양육부장 / 남) 면-김동철 명-안준모 여) 면-김영자 명-박옥자

4교구 1) 서래구역장 / 면-심영희 명-박순복

2) 서래구역권찰 / 면-박순복 명-심영희

3) 방배 1구역장 / 면-곽숙단 명-오명자

4) 방배 1구역권찰 / 면-오명자 명-우숙영

5) 서초 3구역권찰 / 면-김임숙 명-이혜선

6) 서초 4구역권찰 / 면-이혜선 명-김임숙

5교구 1) 수서 1구역장 / 면-안순옥 명-박병순

2) 수서 2구역장 / 면-곽계자 명-이해주

3) 수서 3구역장 / 명-곽계자

4) 수서 1,2부지역장 / 면-안순옥 명-이해주

5) 수서 3부지역장 / 면-이해주 명-안순옥

8교구 1) 벽산 구역장 / 면-신은옥 명-안선희

2) 용문 2구역권찰 / 명-신은옥

10교구 1) 남성 구역장 / 면-박세준 명-조순현

2) 여성 구역장 / 면-박순옥 명-임창순

12교구 1) 서교구역 여성구역장 / 명-이소희

14교구 1) 목4 부지역장 / 면-이정애 명-이수덕

15교구 1) 사당6 구역권찰 / 명-김영옥

8. 서리집사 추가 임명자

4교구 / 유은상(84-754) 전태수(2004-0322) 정진홍(2005-0335) 김양숙(3368)

이정림(94-1323) 조숙희(87-819) 최은정(97-470)

5교구 / 채은미(98-504) 하영귀(94-1285)

8교구 / 김정은(92-391)

10교구 / 김광진(93-1793)

11교구 / 김낙교(2001-0163)

13교구 / 이주승(2004-0357) 정혜숙(2004-0792)

15교구 / 남미란(89-1160)

16교구 / 이일영(84-1236)

17교구 / 이미영(96-593)

18교구 / 김영호(90-280) 박무연(88-747)

19교구 / 김화선(2002-0072)

9. 권찰 추가 임명자 명단

5교구 / 김미정(96-1058)

2005년 은퇴 시상자

은퇴자

장 로 오진국(559) 엄필성(1920) 김영길(3393) 안종옥(1304) (4명)

안수집사 권재룡(1931) 박종현(79-130) 김민술(85-873) 조석구(85-889) (4명)

권 사 강보길(2272) 강호임(81-235) 고금자(5201) 권순애(82-123)

김봉덕(82-520) 김석환(243) 김성도(89-622)

김 순(1462, 장기근속은퇴자) 김순동(1418) 김순배(2813)

김한선(84-943) 김효정(85-19) 김희애(85-29) 박두희(80-374)

박복동(80-129) 신일순(80-859) 심영보(85-536) 안 정(2003-0530)

오숙옥(137) 유금례(79-241) 유영자(79-333) 이광일(1054)

이옥순(3127) 이은자(81-612) 이인숙(3826) 장성혜(236)

장영자(579) 최애숙(531) 한순희(2725) 황순화(678) (30명)

은퇴시상 12월 18일(다음 주일) 찬양 예배 시 분당에서

찬양예배 30분 전에 예행연습이 있으므로

분당 앞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와 장기근속이 중복되시는 분은 은퇴자로 시상합니다.

새 가 족 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79	최원자	2	루디아		2991	바이산진브	19	외선부	저로길(19)
2980	이영민	19	청년1부	이광일(2)	2992	박재문	19	청년1부	김희수(1)
2981	반	19	외선부		2993	김정숙	14	에배다부	정영미(19)
2982	한사루트	19	외선부	김진경(5)	2994	이비르메드	19	외선부	저로길(19)
2983	프라칸보리	19	외선부	이희봉(12)	2995	이현수	19	청년1부	김한재(10)
2984	셀렌비	19	외선부	정옥림(4)	2996	김종진	9	청년2부	한수미(9)
2985	수은	19	외선부	김진경(5)	2997	공옥만	9	청년2부	한수미(9)
2986	강원용	19	청년1부	김철남(8)	2998	김지운	9	청년1부	한수미(9)
2987	투영	19	외선부	김석영(7)	2999	김지화	9	청년1부	한수미(9)
2988	하	19	외선부	조영숙(5)	3000	김윤용	3	청년1부	이복순(10)
2989	투영	19	외선부	김지선(7)	3001	김혜라	8	청년2부	도수자(8)
2990	이윤지	1	대학부	노정자(1)	3002	박지선	19	대학부	김신영(8)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분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